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피의자 신분 소환

특수단, 계엄령 문건TF 관련 지시·보고 및선 집중 추궁 세월호사찰 관련 압수수색도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6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또 특수단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에서는 이날 기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강원 참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소 참모장은 지

난 24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소 참모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 했는데 입장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사항도 검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문건 작성과정에서 실행계획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느냐", "예하부대에는 어디까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조사단에 다 말씀드리려 한다"고만 답했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3차장이었던 소 참모장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TF에는 소강원 참모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약 15명이 참여했다. 소강원 참모장을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주부터 이 TF에 참여했던 실무자 및 영관급 장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 자료' 작성의 책임자인 기무진 기무사 5차장(준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기무진 5차장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됐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소 참모장과 기무진 5차장 등 2명이다.

특수단은 전남 기무사와 관리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특수단에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환된 소 참모장과 기무진 5차장(준장)을 직무에서 배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단 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기무사령부와 기무사 예하부대를 압수수색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직후 관련 TF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유족 등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자 엄중 문책"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러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

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 책임자 출석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태스크포스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미공개 228건 모두 공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 410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6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밀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개되는 문서파일은 언론보도를 위해 기자단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중 98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주로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

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건들이었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하청우 전 대한변협회장 사찰문건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찰문건 등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내용의 문건들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건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각급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하면서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공개 228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제도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 문건이 포함됨 것으로 전해져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서도 북한예술단 공연 볼 수 있을까

도종환 장관 "개최 검토 중"

한반도 평화 정착의 상징적인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한예술단의 광주 공연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 공연 중 일부를 광주에서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9월부터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미술전도 열리는 만큼 북한예술단의 광주 공연이 성사될 경우 지역의 올해 가을 지역의 최대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 대답할 '가을이 왔다'로 준비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 단독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한 후 도 장관에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결실을 바탕으로 올가을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공연장 섭외가 어려워 지방 공연 가능성에 대해 문체부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도 장관은 서울 여가자 포럼에 참석해 "서울 주요 공연장들이 이미 1년 전에 대관이 완료된 상황이라 서울을 포함해 일산과 경기, 지방까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날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달라는 최 의원의 요청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올해 가을 북한 공연단 방문 때 일부 공연을 광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서울공연은 지난 4월 평양공연

북한예술단의 광주공연과 관련해 광주시는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협의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도 장관의 발언에 주목하고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9~11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북한미술전이 선보이는 만큼 이 기간 북한예술단이 광주를 찾을 경우 '빅 이벤트' 성공 가능성도 기대된다.

정전협정일...北, 오늘 미군 유해 200여구 송환

북한이 최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보관해온 미군유해 송환용 나무상자를 수령하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26일 "북한이 유해송환용 나무상자 두 트럭 분량을 최근 수령했으며 미국과 합의한 대로 27일 6:25전쟁 중 사망 미군의 유해를 송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군 유해 송환 예상 일정



- 1 26일 북한 판문점에서 미군유해 송환용 나무상자 수령
- 2 27일 (정전협정체결일) 6·25전쟁 중 사망 미군의 유해 송환 예정
- 3 오산 미군공군기지에서 유해 인수행사 후 검식절차 진행
- 4 다음 달 1일께 하와이로 유해를 옮겨 유전자(DNA) 확인작업 등을 한 뒤 미국 현지 가족과 유전자 대조작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유해 송환을 약속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확보해놓은 미군 추경 유해 200여 구에 대해 자체적인 확인작업을 통해 동물 뼈 등을 가리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 송환과정에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관계자들이 방북해 현지에서 간단한 확인작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군 수송기를 보내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북한으로부터 미군유해를 돌려받아 오산 미군공군기지로 이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송환용 미군 수송기는 이미 오산 공군기지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PAA 관계자들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를 밟고 나서 다음 달 1일께 하와이로 유해를 옮겨 유전자(DNA) 조사 등을 한 뒤 미국 현지 가족과 유전자를 대조한다.

임야·삽니다

당일 매입가능,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임대 741㎡,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7억 ◆
(조정가)

인하건설(주)

010-3605-0214
062) 655-4840

광산구 공고 제2018-841호

무연분묘 개장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인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2. 공고인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9번길 15(송정동)
3. 분묘의 위치(장소) 및 기수

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	개장사유
광산구 비아동	35-6	전	5기	송정점단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4. 공고기간 : 분묘개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관내 공설공원 묘지
7. 신고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9번길 15(송정동)
 - 광산구청 생활체육지원단 (☎ 062-960-8723)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분묘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 공사부지 내에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동 공고로 같음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광 산 구 청 장